



이 다윗 안나 선교사 기도 편지 (GP.USA)

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Tel:714-774-9191,301-250-8856.19

주 안에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확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사랑과 기도로 동역하고 계시는 교회들과 성도님들에게 주 안에서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1989년 7월 부족한 종이 워싱턴 한인 침례 교회에서 앤수 집사로 선교부사역을 섬기고 있을 때 당시 파라과이에 계신 협력 선교사님으로부터 선교지 방문 요청을 받고 약 2주간 남미 파라과이 선교지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께서 부족한 종에게 이 땅에 있는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 주시고 부족한 종을 복음 전도자의 사명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그후 3년간의 신학 공부와 1년간 선교사 훈련 과정을 거쳐서 1994년 PWM(현 GP 선교회) 선교사로 파송 받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부종한 종에게 주신 말씀이 디모데전서 2:4 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한다”라는 말씀 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지난 30년 사도 바울과 같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 갈 길을 달려 갈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렇게 지난간 사역의 시간속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하심을 경험하기도 하였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개인적으로 마음의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내기도 하였습니다. 특히 딸 에스더의 사고로 인한 정신적인 장애의 고통과 최근에는 아내 이 안나 선교사의 심장 시술 그리고 부족한 종은 최근 급격하게 눈의 시력이 나빠져서 지금은 성경도 읽을 수 없을 정도로 시력이 약해져 매주 섬기던 새벽 예배 설교 사역도 잠시 중단한 상태에 있습니다.

시편 121편에 시편 기자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는 오늘도 세상 바라 보지 않고 사람들 바라 보지 않으며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과 같이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이 어려움의 싸움들을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부가 영적으로 마음적으로 지치지 않고 이 믿음의 싸움을 잘 감당해 갈수 있도록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간절한 기도의 부탁드립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저희들의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는 은혜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저희 부부 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신 사명 잘 감당해 갈수 있도록 동역자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기도와 사랑의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중국 방문 및 말레이시아 선교사 훈련원 강의.

부족한 종은 지난 5.9 일-6.13 일 약 35일간 중국과 말레이시아 그리고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을 하였습니다. 제 눈이 잘 보이질 않아서 여행하는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건강하게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특히 약 3년 반 만에 방문한 중국에서는 정말 그동안 보고 싶었던 현지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3년 반 만에 만나 함께 손을 잡고 기도하며 서로 격려하며 위로 받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감동의 시간이 었습니다. 중국 정부의 가정 교회에 대한 팁박과 또한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의 시간들을 보냈던 중국 가정교회 형제 자매들에게서 그 동안 신앙적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너무 아팠고 또한 한편으로는 감사의 마음이 있었습니다. 가정 교회 한 형제가 저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선생님! 비록 중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지금 상황에서 어쩔 수 없어서 외형적인 교회들의 십자가가 내려지고 교회 문들은 굳게 잠겨 있지만은 지난 7년간의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인 교회들인 중국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실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비밀리에 두 세사람이 모여 함께 기도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위험한 가운데에서도 나가서 전도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순간 저의 눈에는 눈물이 핑 돌면서 하나님께서 중국의 교회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중국 교회들과 함께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중국 교회의 성장의 동력이 어디에서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중국 정부로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 가정 교회들과 교회 지도자들이 어려움의 시간 속에서도 함께 격려하며 기도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더욱 성숙해 가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동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말레이시아 선교사 훈련원에서 강의

말레이시아에는 제가 속해 있는 GP 선교회 선교사 훈련원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선교회에 선교사로 헌신한 5가정이 말레이시아 훈련원에서 6개월간 학습하면서 선교사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훈련원에 가서 5일간 신입 선교사들을 위한 강의를 하였습니다. 주로 선교사들이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가야하는지와 또한 저희 사역지의 경험들을 이야기해 주면서 선교 사역지에서 둘째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는지 등을 강의하여 주었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이나 미국의 많은 선교 단체들이 매년 선교사 지원자들이 줄어

들거나 아예 지원자가 하나도 없는 선교 단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선교하기가 점점 어려워지는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선교사로 헌신한 5 가정(10 명)이 잘 준비된 선교사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사역지로 나갈 수 있도록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CHINESE FELLOWSHIP 공동체를 위한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금년 2 월에 메릴랜드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하였습니다. 시작을 7 명의 중국인 형제 자매와 저희 부부 이렇게 매주일 10 시에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최근에는 이중 5 명의 형제 자매가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으로 해서 지금은 중국인 부부와 저의 부부만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CHINESE FELLOWSHIP 공동체를 통하여 주변에 살고 있는 중국인들에게 복음의 통로로 사용될 수 있도록 동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저희 부부에게 주신 중국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오랜 세월 변함없으신 기도와 사람으로 때로는 격려의 말씀으로 함께 동역하여 주신 성도님들과 교회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면서 사랑으로 섬겨 주시면서 동역하여 주신 동역자 여러분들의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사역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가 늘 쟁반 하시길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동역자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의 부탁을 드립니다.

1. 중국 가정교회들과 지도자들이 지금의 어려움과 고난의 시간들을 기도와 믿음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고 이겨 나갈 수 있도록...
2. 중국 시진핑과 당 간부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서 중국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멈추도록...
3. CHINESE FELLOWSHIP 공동체를 통해서 메릴랜드 지역의 중국인들에게 복음의 통로가 되도록...
4. 이 안나 선교사의 심장과 이 다윗 선교사의 눈에 성령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 나도록

2023.7 월 주 안에서 함께 복음의 동역자 된 이 다윗, 안나 선교사 올림.